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충성대신문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제 200호 NEWS

- 02 학교소식 배현국소장, 제38대 학교장취임
- 03 학교소식 2023 빛꽃 군악 버스킹
- 04 학교소식 2023 Photo Contest, 충성대의 봄
- 05 육군소식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 06 생도모집 2023년도 생도모집 광고
- 09 생도광장 군사훈련을 경험한 60기들의 모습
- 11 오피니언 사회 저명인사 칼럼
- 12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 14 교양 2023 트렌드 노트
-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호국간성의요람
시관 육군3사관학교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배현국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오찬율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200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김세중, 송동익, 상병 김영우, 설영환, 일병 윤춘기

배현국 소장, 제38대 학교장 취임

사관생도 미래가 육군과 대한민국의 미래, 정에 장교 양성과 학교 발전 위해 진력할 것

학교는 지난 20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7대 · 38대 학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한 배현국 소장은 3사 25기로 임관하여 6포병여단장, 55보병사단장, 1군단 부군단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배현국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관생도의 미래가 육군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이들이 가슴에 큰 꿈을 품고 정예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임한 방성대 소장은 지난 2022년 6월 부임한 이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업무문화 조성, 우수인재 확보 · 양성을 위한 노력, 학 · 군 교류협력 증진 등 내실을 다지면서 학교의 외연 확대에 힘써왔으며, 5군단 부군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소령 이상민



배현국(오른쪽) 신임 학교장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기를 이양받고 있다.

민·관·군 화합의 한마당 행사

영천시민 · 동문 · 학부모 등 7,000여 명 학교 초청, 볼거리 · 먹거리 풍성한 행사 진행



학교는 지난 28일 영천시민, 동문, 학부모 등을 학교로 초청하여 민·관·군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영천시민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교 개방행사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약

7,000여 명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만끽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특전사 고공 강하 ▶ 육군 항공(헬기) 축하비행 ▶ 군악대 버스킹 및 의장대 시범 ▶ 군 장비 및 물자전시 ▶ 체험 부스 운영(승마, 드론, 골프, 국궁 등) ▶ 생도 사진 · 서예작품 전시회 ▶ 생도 그룹사운드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영천시에서는 수취침 체험과 보드게임 부스, 지역 특산품(와인 등) 판매 및 관광홍보 안내 부스, 영천 청년고리 프로젝트 부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함을 더했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 푸드트럭 22대가 설치되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여 영천지역의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까지 선사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특전사 고공 강하와 생도들의 충성

의식이었다. 고공 강하 간 학교의 슬로건인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함께 내려올 때 관람 인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충성의식에는 특별히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8기 선배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보 열병을 하며 50년 후배들과 뜨거운 선 · 후배의 정을 나누었다. 행사를 주관한 학교장(소장 배현국)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번 행사가 연령과 세대를 넘어 민 · 관 · 군이 함께 어우러져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학교는 영천시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고자 더욱 노력해갈 것”이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주무관 길진규



세계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강형원, 충성대에 오다



▲ 강형원 포토 저널리스트 초빙강연 모습

3월 17일 미국 백악관에서 사진가로 활동하고 '유퀴즈' 방송 등에 출연했던 강형원 포토 저널리스트를 초빙하여 생도들에게 인생교훈 등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초빙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 문화와 21세기의 시티즌십 및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강연을 통해 사관생도들은 강사의 인생 성공 스토리와 교훈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강형원 포토 저널리스트는 미국 LA타임즈, AP통신 등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폴리처

상'을 수상하였다. 폴리처 상은 언론계 노벨 상이라고 불릴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소령 이상민



“봄봄봄♪ 봄이 왔어요♪” 2023 벚꽃 군악 버스킹

3월 30일부터 1주간 호국정, 생도회관 등지에서 봄의 정취 느껴



▲ 군악대가 봄을 맞이하여 기획한 벚꽃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벚꽃 개화 시기를 맞이한 3월 30일부터 교내에서는 1주간에 걸쳐 '벚꽃 군악 버스킹'이 실시되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No 마스크'로 봄을 맞이하는 생도들과 장병들에게 따스한 봄의 온기를 음악과 함께 전해주고자 기획되었다.

군악대는 '벚꽃엔딩, 봄날,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봄 시즌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를 리스트화 하고 이를 점심시간에 들려 줌으로써 충성대에 본격적으로 봄이 왔음을 알렸다. 특히 이번 버스킹은 생도 및 장병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호국정, 생도회관, 중앙관, 어울림식당 등 주요 스폿을 선정하고, 30여명의 군악대 인원들을 2개조로 나누어 동시 공연을 순회하며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다양한 자연풍경 속에서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군악대장(장문성 소령)은 “생도들이 훗날 충성대에서의 봄을 떠올릴 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공연을 준비한 군악대원들과 이를 관람하는 생도들 모두가 웃음꽃 가득한 시간이 되어 기쁘다.”라며 준비한 소감을 밝혔다.

소령 이상민



2023 영천 벚꽃 마라톤 대회

생도 및 장병 130여명 참가, 민수빈 생도 여성 5km 부분 1위 등 부문별 Top10에 12명

4월 2일 영천댐 일원에서 실시된 영천 벚꽃 100리길 마라톤 대회에 생도 및 장병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벚꽃 마라톤 대회는 영천시민과 마라톤 동호인 등 1천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가하였다. 학교에서도 1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창 진행중인 '2023년 사관생도 모집'을 위해 홍보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는 간부들도 있었다.



▲ 5km 부문 시상대에 오른 민수빈(1위, 왼쪽에서 첫번째) 생도와 김승우(3위, 왼쪽에서 세 번째) 생도

종목은 5km, 10km, Half 코스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민수빈 생도(60기)가 5km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이규설 소령 등 12명의 인원들이 각 부문별 Top 10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성적을 거두었다.



▲ 마라톤 대회장에서 2023년 사관생도 모집홍보를 하는 모습

5km 부분 1위를 차지한 민수빈 생도는 “동기 및 4학년 생도들이 서로 응원하고 함께 벚꽃길을 달리면서 활력을 얻는 시간이었다. 생도 생활 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 하며, 체력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령 이상민





충성대 구성원들의 소통과 단합을 위한 사진 공모전 2023 Photo Contest, 사진 찍으며 느끼는 충성대의 봄



▶ 봄을 맞이하여 실시한 사진 콘테스트에서 우수 작품 선별을 위해 관람 및 투표를 실시하고있다.

봄이 되면 충성대에는 얼었던 대지가 녹고 벚꽃·목련·매화 등 아름다운 꽃들이 전해주는 봄꽃 향기로 그윽하다.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공보정훈실 주관으로 3~4월에 걸쳐 '2023년 충성대의 봄,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였다.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해 충성대 구성원 모두가 봄을 느끼며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체전에는 총 20개 팀이, 개인전에는 32개 팀이 참여하여 생도들과 학교 구성원의 열띤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단체전과 개인전 우수 작품에 선정된 인원들에게는 격려금과 상품권을 수여하였다.

소령 이상민





QR코드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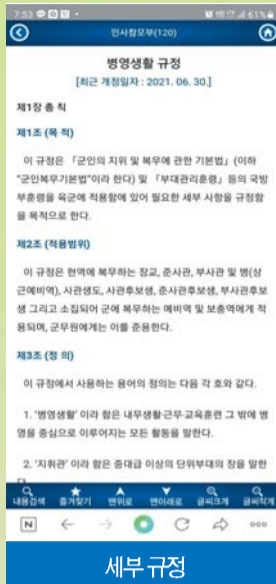
www.army.mil.kr/regula

어플 메인화면

어플 접속방법



소관부서별 검색



세부 규정

군 생활의 바이블 '육규',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최근 육군본부 법무실에서는 육군규정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규정을 적시적이고 편리하게 검색 및 열람 기능토록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기존에 육군 규정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트라넷(국방망) 관련 홈페이지에서만 검색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많았으나, 이제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실시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초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인트라넷 페이지를 통해 '현역 실명인증'을 위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해당 어플에 탑재된 규정을 무단으로 비인가자에게 열람 및 유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사용간 유의해야 한다.

사용 방법

- 1 인트라넷: 육군포털 홈페이지 > '모바일 육군' 게시판 클릭
- 2 핸드폰: QR코드 또는 URL 입력하여 '육군 규정' 모바일 웹 접속
- 3 회원가입/실명인증: 인트라넷 '모바일 육군' 게시판 내 '실명인증번호' 클릭

국방일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김찬식	이영근	송필영	이정수	이재성	김원성	성주시	김홍조	김명진	박문하	심복찬	김한복
강창호	김숙락	윤홍중	채금섭	장기문	한종성	이중식	권태진	박소찬	김대원	김기석	김기성
이병권	이영의	원경업	유원호	이두순	이완희	심문하	임종렬	김길건	박순찬	최종식	이학순
손화성	이경국	안석운	문원식	백보옥	심철순	이승우	신태형	허만복	김인수	김기석	한영오
김효진	주영탁	이상배	성상호	김덕선	나영석	조희율	박성태	최창열	신창희	김영수	김주영
김홍필	정인수	김복길	임태빈	전승복	이홍우	추교성	이병우	한표륜	신양철	김용택	김진주
박종욱	이완호	송찬호	박응수	김희태	이봉룡	도문환	정태모	방원조	박정석	장하수	박소득
홍성원	김용화	배원식	신현중	이원오	최의량	최두섭	남이우	정인호	문창욱	장갑찬	김승욱
이문규	김용식	박양근	유지철	양호초	유경병	우현득	주덕갑	김수봉	김관건	김수욱	김동숙
한정섭	김중구	김중련	김용호	홍성현	서병욱	손봉욱	김용섭	이하원	리종함	김화길	최영근

국방일보에서 6·25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조사단과 함께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매주 수요일 국방일보 지면에 호국영웅의 이름과 당시 주소를 공개하여 알리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는 전쟁 중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실제로는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소속히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TF 형태로 활동해 왔

으나 2019년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군 인사사령부에 정식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와 맥락을 함께하여 국방일보에 호국영웅의 명단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다만 지면제한으로 인하여 명단 전체를 게재하지 못하고 당시 주소의 지역(시·군·읍) 해당인원을 순차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국방일보 홈페이지에서 기사 검색을 하면 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 있는 수훈 당사자이거나, 수훈자를 아는 분들은 조사단의 공식 전화번호인 1661-7625로 연락하면 무공훈장 수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령 이상민

The Reason of POW

자유의 방패 “한미동맹 공고”

보도기사: 국방일보

F/S 연습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합연습이란?

- ◆ 평화 수호의 상징물인 방패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연습임.
- ◆ 연습 기간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OPX)과 더불어 제대별·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합아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함. 통상 육군은 여단급 연합 과학화전투훈련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제거훈련, 화력운용 연습, 공격헬기 사격훈련 등 대대급 훈련을 전개함.
- ◆ 후반기에는 일부 기간을 정부연습인 '을지(Uchi)연습'과 통합 실시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UFS)'라는 명칭으로 실시함.



한·미 장병들이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간 경기도 연천군 도하훈련장에서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가 지난 3월 13일부터 진행한 2023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이 3월 2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연습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축소·조정됐던 한미 연합연습이 정상화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연합연습을 정상 시행하며 확장억제를 현시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이 이번 연습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습은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대북 경고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



육군 3사관학교

3학년 편입학 사관학교

원서접수 : 2023. 4.24(월) ~ 5.31(수)

2024학년도 정시생도 61기

2025학년도 예비생도 62기

• 접수 : 인터넷(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20~2313701~02

• 학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99.3.1~'05.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00.3.1~'06.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사관생도 모집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내용입니다.



다이나미를 위하여

우리의 동기회가 드디어 본격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다. 품위유지비도 들어왔었다. 슬슬 학교에서 허락한 유일한 투자 동기회비를 내야하는 시간이다.

첫 동기회비는 99,000원. 아무래도 우리 동기회는 우리의 임관 반지를 다이아로 맞출 예정인가보다. 동기들의 냉담한 반응에 99,000원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 인상의 이유를 설명해주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동기회의 수고는 잘 알지만, 우리의 다이아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자금이체를 하염없이 지켜본다.

마지막 한 세트

부분적인 근육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입성하게 된 소문의 생도대 헬스장. 기초군사 훈련 당시 머릿속으로 그려만 보았던 이곳은 내게 마치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 같은 존재다. 선배 생도들도 있지만, 운동은 각자 하는 것이니 가볍게 인사를 하고 기구 앞에서 있었다. 한참 운동을 하던 중 아까 인사를 드린 선배 생도가 다가왔다.

A: 후배 생도님은 몇 세트나 남으셨나?
B: 죄송합니다! 4세트 정도 더 남았는데 10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이 지난 뒤)
A: 음...10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나?
B: 2분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A: 아냐~ 천천히 해.

그렇게 떠나가는 줄 알았던 선배 생도는 내 옆에 자리를 잡고 통화를 시작한다.

A: 왜 안 오냐고? 아니 운동만 가볍게 하고 가서 밀린 과제랑 요약평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줄이 길어서 내일 아침이나 되어서야 복귀할 거 같네.

그렇게 눈치를 주시는 선배님을 뒤로 한채 기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24시간이 모자라

오늘도 평화롭게 떠오르는 해와 크고 우렁찬 생도들의 아침점호 소리를 통해 생도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기상 후 식사와 학교출장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그것마저도 후 배식으로 식사를 한다면 20분이라는 뼈대한 준비시간, 그 시간 동안에도 생도들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수업의 연속과 밀려오는 과제, 끝없는 체력단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자란 시간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상어 떼

매일 밤 생도대는 한밤중의 차가운 태평양이 된다. 서늘한 안광을 드리우며 안식처인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연약한 생도들을 사냥하기 위해 복도라는 무법지대를 유유히 지나간다. 그들은 항상 문 앞의 작은 창을 통해 사냥감이 무엇일는지 지켜본 뒤 긴장이 풀어진 안식처로 급습한다. (끼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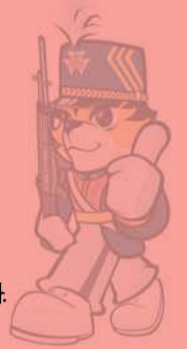
A: 쉬어! 충성! 000 생활관 야간 학습 중!
B: 어 그래, 그래, 근데 너희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던 거야?
A: 현재 요약고사 준비를 위해 핸드폰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B: 어, 근데, 보고는 했고?
A: 보고는...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B: 그래? 그럼 알지? 벌점 써~

그렇게 오늘도 상어는 가차 없이 연약한 먹잇감을 해집고서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나선다.

가오인가, 모범인가

60기 후배 생도들이 들어오고 현재 59기들은 각자 나름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후배는 선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본받고 열심히 따르며,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조심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순환 속에도 변질된 생도들이 간혹 보인다.

사소한 부분을 몰고 늘어서 후배를 괴롭히는 선배, 밤늦게까지 자신이 못했던 점은 거짓으로 숨기고 질했던 부분을 과장하여 허위를 하는 명예롭지 못한 선배, 동기들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지만, 후배들에게만은 진심으로 화를 내는 선배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은 과연 그것이 진심으로 모범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동기로서 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그저 허영심에 가득 찬 가오를 부린다고 생각한다.



벚꽃과 봄의 불문율 60기 기자생도 이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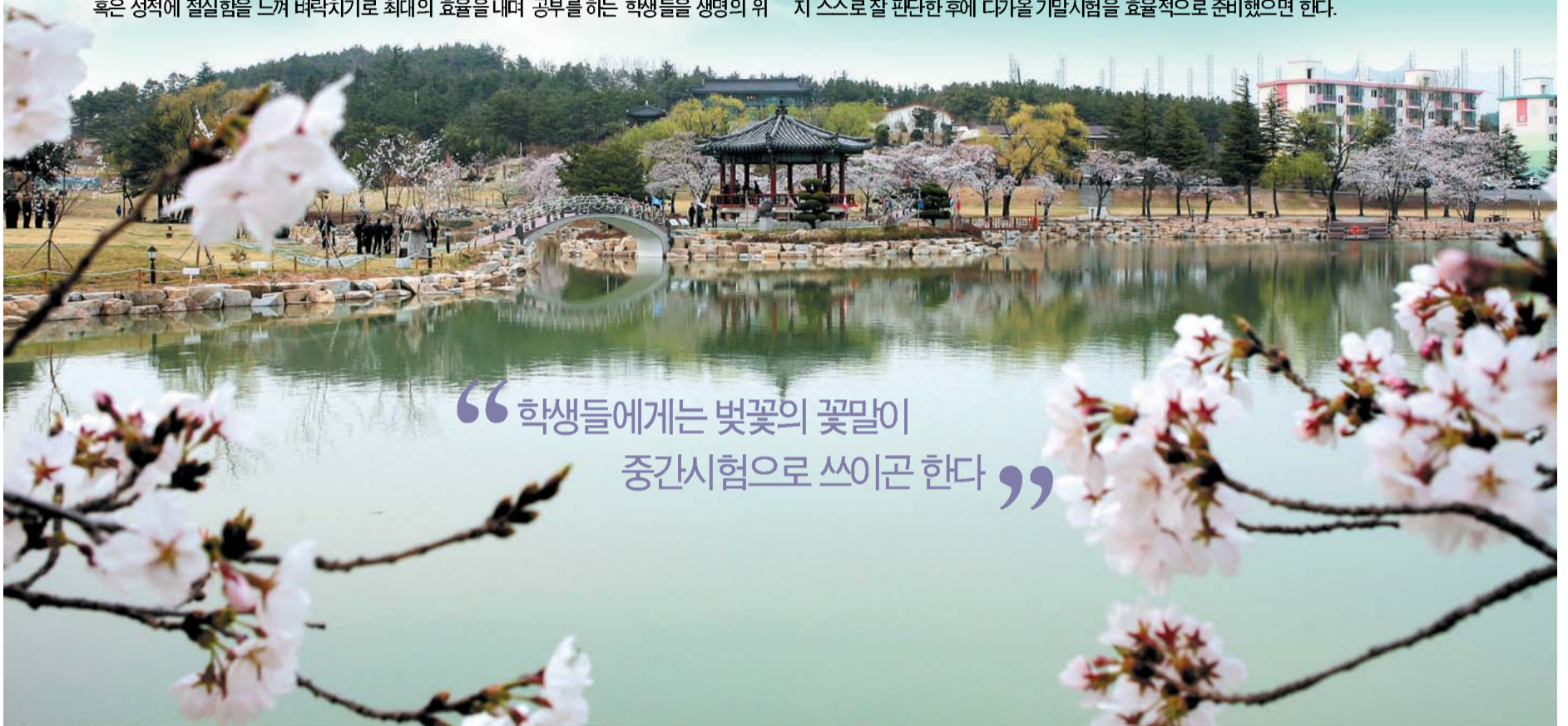
굉장히 찬 바람이 불던 겨울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꽃이 만개하는 봄이 찾아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봄에는 불문율이 있는지 알고 있나, 벚꽃의 꽃말을 알고 있냐고 말이다. 즉, 벚꽃이 만개하고 따뜻한 봄에는 항상 중간시험이 겹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벚꽃의 색이 차오르면, 4월의 문턱이 찾아온다. 4월 벚꽃이 찾아온 충성대에서 생도들은 어떻게 중간시험을 준비했을까?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흔히 세 부류로 나뉜다. '인어공주'와 '고라니' 그리고 '갓(God)생'이다. 먼저 '인어공주'란 'Under the C(sea)' 공부도 안 하고 중간시험도 그저 그렇게 준비하여 시험을 친 학생들을 인어공주라 말한다. 그리고 '고라니'란 시험 하루 전 시험의 중요성 혹은 성적에 절실함을 느껴 벼락치기로 최대의 효율을 내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생명의 위

협을 느낄 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열심히 뛰는 고라니에 비유한 말이다. 마지막으로 '갓(God)생'이란 신을 의미하는 'God' 과 인생을 뜻하는 '생'을 합친 합성어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밀로,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일컫는다. 지금 이 순간 기사를 읽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

생도들은 4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중간시험을 치렀다. 중간시험 일정은 군사선택을 시작으로 군사필수, 전공과목 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명예시험 방식으로 진행됐다. 명예시험은 생도들의 명예심을 확인해주는 시험이다. 그렇기에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무감독 시험으로 진행된다.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던 중간시험은 이미 끝이 났다. 중간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생도들은 본인들이 '인어공주', '고라니', '갓(GOD)생' 중 어떤 부류에 속하여 시험을 준비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한 후에 다가올 기말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는 벚꽃의 꽃말이
중간시험으로 쓰이곤 한다”

60기 기수명칭 선정 : 청월(靑月) 59기 기자생도 김준호

기수명칭 고안한 60기 노회성 생도 인터뷰

60기 동기총회에서 기수명칭이 '청월(靑月)'로 선정되었다. '푸른 청(靑)'은 효율성과 권위, 그리고 사관생도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명예'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지닌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달 월(月)'은 늦은 밤에도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며 달처럼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국군의 모습을 뜻한다. 청월 60기의 기수명칭을 고안한 60기 노회성 생도와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기수명칭을 생각하게 된 계기?

명예 점호를 하는 시간에 푸른색 볼펜을 사용해 명예서약서를 작성할 때가 있었다. 그곳에 의문을 품어 질문을 드렸는데, 푸른색이 명예를 상징한다는 답변을 듣고 기수명칭에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다. 또한, 월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주야장천 노력하는 군인을 떠올리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한 달을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기수명칭의 뜻?

위에서 이야기한 청과 월의 의미를 합쳐 '명예를 잊지 않고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60기가 기수명칭과 연관해서 발전됐으면 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선 동기들이 청월의 의미와 같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며, 자신의 언행 모두에서 뒤편 모습을 보이는 사관생도가 되었으면 한다. 먼 훗날 60기들이 임관해서도 생도 생활 간 지켜온 명예와 뒤편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발전해나가는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월(靑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60기가 국가를 수호하는 명예로운 장교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사관생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靑月



군사훈련을 경험한 60기들의 모습

59기 기자생도 이재원



“ 3월이 되자 60기 군사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실시된 과목은 기초군사훈련 (이하 기훈) 때 접했던 개인화기와 각개전투였다. 훈련을 하다보니 기훈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이 하나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군사학을 임하는 생도들의 모습을 보니 지난 2월 실시한 기훈을 통해 어느정도 자신감이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훈 때는 개인화기 사격 간빙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지만 사격을 한번 해본 생도들은 한층 자신감을 기졌고 영점을 맞춰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생도들은 기훈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성장한 모양이다.

다음 훈련은 군사학의 꽃으로 불리우는 각개전투였다. 이동할 때 '훈련은 전투다! 각개전투!'를 외치는 60기의 목소리에서 각개전투에서 승리해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마음기짐이 느껴졌다. 소대장조와 분대장조로 역할을 나누어 통나무와 비위를 활용한 엄폐 및 경계를 하고, 철조망지대를 극복 후 포복과 약진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 수류탄 투척을 하며 돌파훈련을 실시하였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들과 땀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외없이 훈련을 마무리했다.

고지점령을 완료한 60기 생도들 중 누군가 했던 말이 있었다. '생각보다 높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 훈련장 시작지점에서부터 고지를 향해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여 훈련장을 내달리는 60기 생도들의 모습에서 일부 지친 모습도 보였지만 고지에 꼭 올라서겠다는 마음 하나로 전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각개전투 교관님은 이전에서 생도들이 육군3사관학교의 대표 장교이자 멋진 군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개전투 교육에 열정적으로 임하셨다. 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60기 생도들은 힘들어도 고지 점령을 위해 뛰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였으며, 이후 앞으로 남은 군사학 과정에 더욱 열의를 갖고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처음 내디딘 교장에서 복귀하였다. ”

60기 사관생도들의 꿈에 그리던 첫 외박

60기 기자생도 강준성

60기 생도들에게 기쁜 일이 찾아왔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학교장님께서 특박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입학식 이후 잠깐 외출을 다녀온 것이 전부였던 60기 생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60기 첫 외박에 대한 소감을 정리해 본다.



특박의 개념으로 갑자기 다녀왔는데 나가기 전에 심정이 어땠는지?

A생도 : 솔직히 나가기 전에는 설렘은 있었으나, 실감이 잘 안났다.

외박 나가기 전 계획?

B생도 :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할 때 응원을 많이 해준 친한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 자주 가던 이발소에 정복 입은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또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고 왔다.

정복을 입었을 때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피소드가 있는지?

C생도 : 주로 어린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많이 바라봐 주었다. 그들에게 작은 롤 모델이 되었기를 바래 본다. 정복을 입고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했다. 친구에게 사관생도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복을 입고 갔는데 '신기함 반, 부러움 반' 이 담긴 눈길을 보내주었다. 실제로 어느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정치적인 집회가 열려서 그 군중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정복을 입은 순간 공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어디서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귀 후에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D생도 : 중간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서 급 우울해졌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잠깐 맛보았지만 바깥세상의 공기가 정말 상쾌했고, 또 다시 바깥공기를 맡고 싶었다. 다음에 나가려면 모집홍보 출장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사관생도가 되어서 정복을 입고 첫 외박을 다녀온 것이 뜻깊고 좋았다. 나의 오랜 목표 중에 하나를 이룰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다음 외박을 나가는 날까지 시간이 꽤 남았는데 그때까지 성취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지?

E생도 : 먼저 체력수준을 1급에서 특급으로 올리고 싶고, 4월 말에 예정된 부대개방행사 공연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비록 짧았지만 첫 외박을 마친 60기 생도들의 얼굴에는 말 그대로 '기쁨'과 '호뭇'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외박모드]에서 [열정모드]로 바뀐 생도들은 달콤했던 첫 외박의 기쁨을 뒤로 한 채 중간시험과 정기 체력측정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칼럼 I



중령 이종하
(공학처 전자공학 교수)

화랑의 후예들이여! 치우천왕을 아는가?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

“대~한민국 짹짹~ 짹 짹짹, 대~한민국 짹짹~ 짹 짹짹” 바로 우리나라 대표 축구 응원단인 ‘붉은악마’였다.

‘붉은악마’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즈음 등장하여 지금까지도 축구경기 때면 때면 나타나는 공식응원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붉은악마’의 상징이 바로 ‘치

우천왕(일명 치우천황)’이다.

‘치우천왕’은 배달국(기원전 3897년~기원전 2333년)의 제14대 자오지환웅으로,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하기 약 3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다.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일명 트로이 전쟁)이 신화(神話)로 취급받았다가 독일의 고고학자인 하인리히 슐리만이 1870년 트로이 유적을 발굴해냄으로써 트로이 역사가 실제 역사로 거듭나게 되었듯이, 약 4700년 전에 있었던 ‘치우천왕’ 역시도 2001년 중국에서 ‘치우천왕’ 비석이 발견됨에 따라 실제 역사로 다시 태어났다.

2001년 3월, 중국 산둥성 문상현 남원진에서 진귀한 비각이 발견되었는데, 확인해보니 ‘치우총(蚩尤塚)’과 ‘치우사(蚩尤祠)’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한민족이 배출한 불세출의 대영웅 ‘치우천왕’의 역사적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단군세기, 규원사화, 동사강목, 성호사설, 연려실기술, 청장관전서 등 우리의 역사서는 물론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史記)를 비롯하여 산해경, 전국책, 한비자, 태평어람, 포박자 등 중국의 많은 역사서에서 ‘치우천황’과 ‘탁록대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치우천왕’은 전설이나 신화 속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탁록대첩’이란 ‘치우천왕’과 ‘황제헌원’과의 10년 동안 있었던 73번의 전쟁으로, 배달국의 제후였던 ‘황제헌

원’이 반란을 일으켜 시작된 전쟁을 말한다. 전쟁 결과,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치우천왕’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나와 있으나, 중국 역사서에는 ‘황제헌원’이 마지막 전투의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나와 있다.

73전(戰) 73승(承)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불세출의 영웅 ‘치우천왕’. 이후 ‘치우천왕’은 우리 한민족의 ‘전쟁의 신(戰神)’이 되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역병을 막고 잡신을 쫓아내기 위해 만든 장승이나 기와를 보면 도깨비 문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군사들의 투구나 방패에도 그런 형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치우천왕’인 것이다. 또한,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거북선에도 ‘치우천왕’이 있는데 바로 거북선 뱃머리에 있는 도깨비 문양이 그것이다.



한 국가의 역사는 그 민족의 흥망과 성쇠를 담고 있어서 역사를 바로 알지 않고는 민족과 나라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한다.

화랑의 후예들이여!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戰神) ‘아레스(Ares)’와 ‘아테나(Athena)’,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마르스(Mars)’,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토르’를 알고 있는가?, 오랜 기간 우리 한민족과 함께해 온 우리의 전쟁의 신(戰神) ‘치우천왕’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전신(戰神), 우리의 ‘치우천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칼럼 II



소령 김태겸
(이학처 국방시스템과학 교수)

2006년 1월, 그토록 바라던 3사관학교에 입성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총용관에 들어섰다. 하루하루가 감격의 순간이었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기초군사훈련은 군 생활의 경험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갔고 엄격한 규율의 생도생활 역시 어느 정도 각오했던 부분이라 버틸만했다. 아니 그 안에서 꾀꾀하게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오히려 자부심을 불러일으켰고 적응이 느린 동기생들을 챙기면서 나의 존재감도 높아지는 듯했다.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고 내가 속해있는 분·소대가 잘못하면 곧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동기생들을 도와줬던 부분이 더 컸다. 생활하는 데 있어 적응하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반학기의 시작과 함께 나의 밀전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도움없이 소화하기 힘든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이공계열로 수학을 했던 터라 일반학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던 필자의 생각은 착각이었다. 이때 나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기들이었다.

기초군사훈련과 생도 생활에 있어 촌데레처럼 나의 챙김을 받던 동기들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지혜

이 이제는 나에게 수업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며 이해를 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왜 선뜻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까? 중간시험 전 주말에 동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심한 듯 챙겨주던 나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머물렀고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오히려 반가웠다고

다들 2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부를 좀 했던 생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생도들에게 학습요령을 알려주고 운동을 잘 했던 생도들은 그렇지 못한 생도들에

게 운동요령을 알려주면 된다. 군 생활을 먼저 경험한 생도들은 경험이 없는 생도들을 도와주며 빠르게 생활에 적응시켜 나가면 된다. 이것이 우리 학교만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MZ세대, MBTI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용어들의 특징을 꼽으라면 짚어지는 개인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대를 신·구세대로 구분하거나 지금의 세대를 하나의

특징으로 낙인찍는 건 옳바르지 않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개인성향이 더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59기가 바라본 60기의 생도들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인구절벽 시대에서 관심과 사랑을 두세배는 더 받으면서 살아온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복지의 혜택 또한 과거에 비해 풍부해져서 오는 상대적인 체감이다.

학교의 교육 방향 또한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과거 선배들은 자갈밭 위에서 맨발로 훈련을 받

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이 목표이다. 세대가 바뀔에 따라 양성과정도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사관학교 교육은 외부 대학교의 어느 학생과 똑같은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동기간의 끈끈한 전우애를 바탕으로 임관 후 지휘할 부대원들의 지휘방법에도 탁월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이 여러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날이 올지라도 어느 한 부대에 소속되어 시너지효과, 승수효과 등을 그 부대원들의 컨트롤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생도들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과 더불어 일반학, 군사학, 군사훈련, 여기에 각종 의식행사까지 통제되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결코 2년이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도 극히 짧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주변 생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우리 학교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

저명인사칼럼 I



신 정택 (세운철강(주) 회장)

조국 수호의

송고한 임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사관생도로서 오롯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신 가족 여러분과 체계적인 훈련과 리더십으로 사관생도들이 진정한 장교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학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관생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과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련의

자랑스러운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과정들이 힘들고 고되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여서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경제 강대국으

로서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영향력과 강력한 국제동맹, 첨단 기술 및 서비스기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대한민국 기반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된 비참하고 참혹한 남침을 물리친 것은 다름 아닌 국방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안보는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축이며 국방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협정으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격언과 같이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안보와 국익을 언제든지 수호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면서 73년 전 6.25 전쟁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존속에 실재하는 위협인 만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생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기업 역시 경제활동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관생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조국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송고하고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명인사칼럼 II



최 재 덕 (원광대학교 교수,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인류가

기후위기, 전염병의 대유행, 4차 산업혁명 등 문명사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미·중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지 만 1년을 넘기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질서의 운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에 대응하며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듯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나토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전략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역량을

대중봉쇄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러시아의 협력을 단절시키고 미국과 유럽이 관계를 강화하여 민주주의 국가가 연대하도록 하였다. 중국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지는 미국의 제안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제·에너지·군사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이 급진전됐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과 중국의 대만통일 의지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적 대립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우호적인 전략환경을 헤쳐나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가치외교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체제와 이념을 공유한다는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빚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이다.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안보를 위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범위를 넘어에너지, 식량, 기술, 경제 등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생산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의 기저에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 깔려있지만,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정확히 양분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한국은 진영 경쟁에 말려들지 않고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여 스스로 강해지기(自強)를 선택하고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더 섬세하고 명민한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문명사적인 대격변의 시대와 한국의 대응

등 고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 결집 등의 변화를 추동했고, 진영 경쟁으로 확장된 미·중 경쟁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대(對)대만 관계를 재설정하며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중국 봉쇄를 본격화했다.

의미를 넘어 경제 발전과 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미·중·일·러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치외교에,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러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안보 위기에 남북한이

2023년 충성대신문 명예 칼럼니스트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어느덧 원만한 봄이 도래했습니다. 일상이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는 시점에서 충성대신문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충성대신문 독자들에게 제201호부터 해안이 담긴 글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 나아갈 길을 안내해줄 분들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고 있는 분들이 명예 칼럼니스트로 참여해 칼럼 한 편 한 편이 더욱 기대되는 만큼 독자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Table with columns: 안보, 문성목, 외교, 주재우, 경제, 운용로, 교육, 김병일, 의학, 홍주의, 국방기술, 김지찬. Each column contains a name, photo, and list of titles/positions.

동문(同門)의 소리

밴드 오브 브라더스(Band Of Brothers)를 통해 본 리더의 모습



중위 김서연(3사57기)
제51보병사단

오만촉광 소위의 계급장을 달고 아전으로 나가기 전, 사관생도 시절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답을 정리해보기를 바란다.

첫 번째 '나는 어떤 리더인가?', 두 번째 '전우애란 무엇인가?'

두 가지 답을 생각해보기 좋은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Band Of Brothers)'가 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 제101공수사단 506연대 이지중대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전쟁의 실상을 가감 없이 잘 표현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다양하게 묘사된 리더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 자신의 무능함을 강압적인 모습으로 감추며 유능한 척하는 리더, 무능하지만 낙하산으로 리더가 되어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리더 등 전장 상황 속 현실적인 리더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드라마 속에서 성공한 리더는 '로널드 스피어스'와 '딕 윈터스'다. 이 두 리더는 총알이 빗발치는 적진에서도 부하보다 맨 앞에 나서서 정확한 판단과 결정능력으로 부하들을 진두지휘한다. 반대로 실패한 리더는 무능력하고 아버지(뉴욕 대법원 판사)의 힘으로 지휘관이 된 '노먼 다이크'와 '소블'이다. 각종 가혹행위와 부조리로 부하들을 괴롭히는 장면, 전술훈련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실제 상황이었던 전원 사망이었던 장면, 전장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 등 그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다수 나오는데, 결국 평소 부하들과의 소통과 전투지식,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해준다.

또한, '전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다. 'Band of Brothers'의 뜻은 '전우'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

서 나오는 대사로부터 따온 것이며 피를 흘린 전우는 곧 형제가 된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만큼 전우애에 대해서 잘 느끼게 해준다. 그들은 함께 전장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고 그 속에서 느낀 고통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서로 다른 출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초반에는 그들도 잡음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가 된다. 생사가 오가는 전투의 산을 하나씩 넘을수록 그들의 전우애가 무적이 되는 모습이 잘 묘사되는데 곧 지휘자, 지휘관이 될 사관생도로서 추후 부대원들을 지휘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리더십은 감성과 지성 그리고 경험과 학습의 결정체이다.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관생도 2년 동안 냉철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옳은 결정을 내리고, 누구보다 앞에 서서 전투에 임하며 부하들을 위해 행동하는 리더십을 가진 장교가 되기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며,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있는 전우와 나를 따르는 부하들을 보며 위로를 주고받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기를 바란다.

리더십은 감성과 지성 그리고 경험과 학습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육군3사관학교 교수사관 동문 현황(8기~17기)



기수	이름	전역 후 현재
8	배기완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과 학과장
	박종성	SK 하이닉스 책임연구원
9	김기연	IBK기업은행 본점 차장
	정덕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및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10	엄복현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윤성	인제대학교 A빅데이터학부 학부장
	황순섭	대구교대 입학사정관
11	김성진	삼성전자
	함성호	투썸플레이스 카페 사업
12	노수정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서상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13	오우진	LG전자 선임연구원

기수	이름	전역 후 현재
14	이호현	스테이크 정식 프랜차이즈 사업
	김강욱	미국 텍사스 환경위원회 화학자
15	오해영	인디애나 대학교 켈리 경영대 전임강사
	최재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16	원영재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행정학 박사과정 재학 중
	임지은	통일부 공무원
17	최동현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
	김범석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치학 박사과정 재학 중
	황홍섭	딜라이트 푸드 CEO
18	정영진	LG Display
	신하영	3사 영어학과 교수



생도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시 안내

총동문회는 더 많은 생도 지원을 위해 김동길 수석부회장(22기), 손인태 사무국장(25기), 박상정 재정국장(28기)을 비롯한 28기 동문들이 생도 모집 현수막을 인천, 부천지역 소재 대학들에 게시하였습니다. 동문 선·후배님을 비롯한 3사관학교의 모든 가족이 한마음으로 생도모집에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사 총동문회



육군3사관학교장 방성대 소장(24기) 등 학교 관계자들이 총동문회를 방문 하였다.

육군3사관학교장, 총동문회 방문

2월 15일, 육군3사관학교장 방성대 소장(24기) 등 학교 관계자들이 총동문회를 방문 하였다.

총동문회에서는 이날 동문회의 주요 추진 사항과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금은 이전에 나가 장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58기 여단장 생도 및 동기회장 생도가 함께 방문하여 총동문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학교장은 동문회관 확장기금 100만원을 기부하여 동문회 사랑을 더 돈독히 하였다.

3사 총동문회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우측 3번째)



신원식 국회의원(우측 3번째)

국회의원 방문, 군인사법 개정 입법 요청

총동문회는 2월 28일 국회를 방문하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신원식 국회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는 3사 출신 장교들이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구분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 부분개정 입법을 요청했다. 후배들이 군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참석자들과 동문들은 의무와 도리를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 참석자 : 박주왕 총동문회장(19기), 최창규 대외협력위원장(19기), 박준석 홍보위원장(22기), 한경수 사무총장(22기), 김형남 모교발전위원(28기)

3사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후 120명의 총동문회 임원들의 기념촬영

총동문회 제40차 정기총회 개최

3월 24일,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120명의 총동문회 임원들은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으로 오준섭(5기), 김명수(8기), 정병우(18기), 황조연(19기)의 자랑스러운 3사인 시상과 서채원(26기), 전태환(27기), 조승범(29기), 이정웅(31기) 공로상 시상을 진행했다.

총동문회장은 격동의 2022년을 돌아보고 총동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는 2023년을 보내기 위해 동문의 참여 확대, 모교발전을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 동문회관 확장을 위한 초석 다지기를 강조했다.

3사 총동문회



10년 단위 동문 후원기수 자매결연 행사 후 기념촬영

10년 단위 동문 후원기수 자매결연 행사 9기, 19기, 29기, 39기, 49기

3월 3일, 10년 단위 동문 후원기수 자매결연 행사를 박주왕 총동문회장 주관으로 5개 기수가 참여하여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폭넓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하나의 매개로 소통하며 화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대화를 통해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3사 총동문회



안양지역 총동문회 창립식 후 60여 동문들의 기념촬영

안양지역 총동문회 창립

3월 23일, 송영호(18기) 초대 동문회장과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지역 총동문회 창립식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했다.

안양지역 동문회는 안양, 의왕, 군포, 과천 등 4개 지역 동문의 화합 단결을 위해 약 1년 전부터 뜻있는 동문들이 추진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안양지역 동문회는 기수를 뛰어넘어 동문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모교 및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지역 동문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3사 총동문회



총동문회관에서 열린 국방혁신 4.0 설명회 후 기념촬영

국방개혁 4.0 설명회

4월 3일,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주광섭 준장) 등 2명이 총동문회관을 방문하여 국방혁신 4.0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중요정책 추진 시 예비역단체의 고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4.0 개념 및 5대 중점 분야에 대해 이창호(19기), 박준석(22기) 등 관련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문회

2023트렌드노트

동경의 소비, 사랑의 소비, 필요의 소비



최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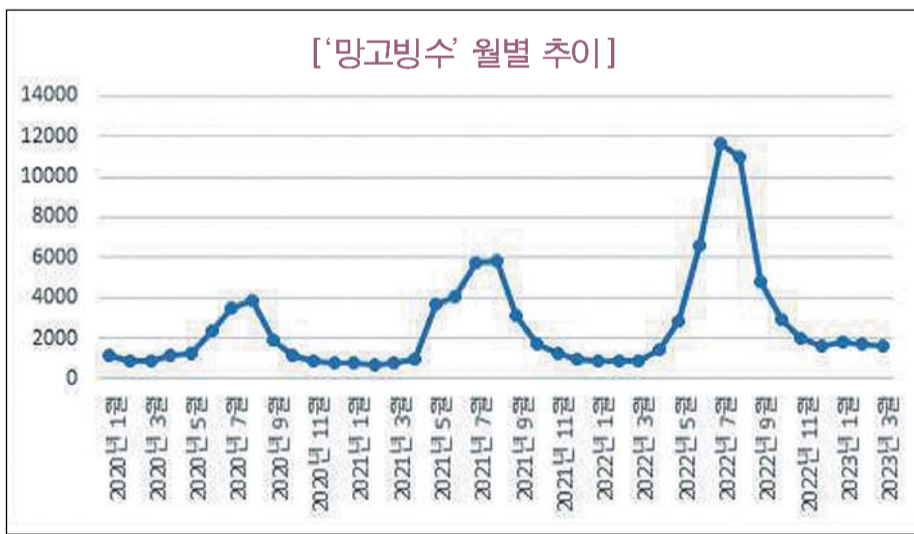
바이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드디어 한국에도 상륙한 애플페이가 이슈다. 이제 수많은 아이폰 유저가 지급 없이도 핸드폰으로, 혹은 애플워치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 가볍게 러닝 하다가 물 한 병 사기 위해 들어간 편의점에서는 간편하게 애플워치로 결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번이고 고심해서 고른 명품 백을 사기 위해 방문한 백화점에서는 어떨까? 해당 백화점에서 특별 대우 해주는 프리미엄카드를 이용해서 구매할 것이다. 이렇듯 결제수단은 소비 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액 자체는 높은 가격이지만 내가 얻은 만족에 비하면 비싸지 않은 '동경의 소비'가 있고, 소비하면서도 가격에 대한 표현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는 '사랑의 소비'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은 적은 데에 비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필요의 소비'가 있다.

'동경의 소비'의 대표적인 예는 8만 3천 원짜리 신라호텔 애플 망고 빙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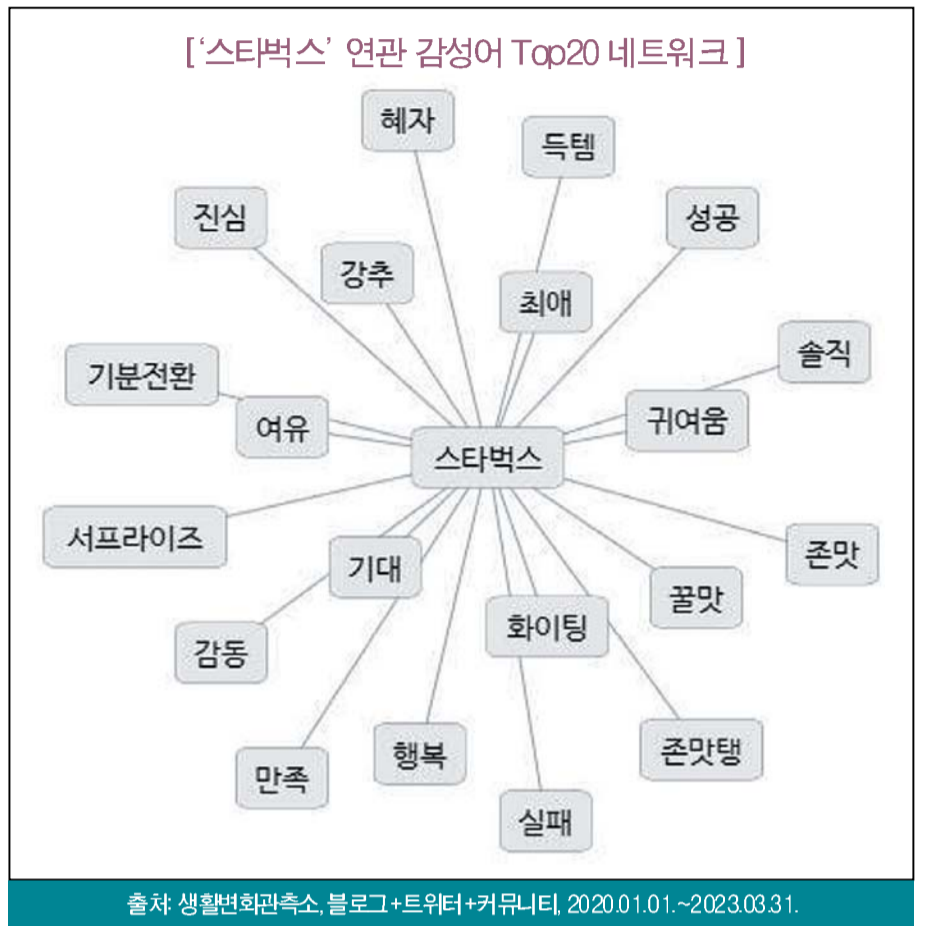
동경의 소비는 다른 것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는 누림의 대중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호캉스(심지어 요즘에는 반나절만 이용하는 반캉스도 있다), 파인다이닝, 고급 디저트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동경의 소비가 눈에 띄는데, 결코 살 수 없는 가격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 소비라고 할 수 있으며, 일 년에 한 번 기꺼이 소비하는 하나

의 리추얼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비의 주요 결제수단은 프리미엄 카드이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연회비도 비싼 '급'을 나누는 카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은 누림의 대중화다. 특별한 이 카드를 가지지 않아도, 같이 간 친구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면서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동경의 소비의 영역에 있는 산업들은 누림의 대중화를 잊지 않아야 한다. 다음 카페, 구찌 레스토랑 같은 명품 브랜드의 식음 공간 오픈은 소비의 빈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자 식음 분야로의 프리미엄화를 위함이다. 모든 사람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사랑의 소비'는 스타벅스로 대표된다. 스타벅스는 소셜 빅데이터상에서 월 4만 건 이상 발현되는 1등 브랜드이다. 재밌는 점은, 스타벅스 연관 감성어로 '좋다', '맛있다' 같은 평가 표현보다 '행복', '재미' 같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표현이 더 많다. 스타벅스는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같이 가는 친구 브랜드인 셈이다. 이처럼 사랑의 소비에서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반드시 이 브랜드라는 선택이 담겨있다. 이 브랜드를 위해서라면 PLCC(프라이빗 라벨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다. 해당 브랜드를 소비할 때 큰 혜택을 주는 스타벅스 현대카드, 코스트코 현대카드 등이 그 예이다. 이 브랜드를 자주 이용하며 결제 시 이 브랜드가 박혀 있는 카드를 내미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의 소비에서의 핵심은 '관계'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한 것은 금액을 할인 해주지가 아니다. 그 브랜드와 함께한 일상에 일어난다. 따라서 사랑의 소비 영역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독료는 아깝지 않지만, 통신비는 유독 아깝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



러한 소비가 바로 '필요의 소비'이다. 배달비, 배송비와 같이 금액 자체는 적는데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특별히 얻는 차별점이 없는 소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브랜드가 중요하지는 않다. 무조건 아끼고 싶은 돈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절감해주는 카드가 있다고 하면 신규 발급하기 마련이다. 이런 카드를 수용하는 소비자들은 체리피커 성향이 강하다. 좋아서 이용하는 것도, 차별화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당장의 이익을 따져 아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카드를 이른바 '지성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용을 줄이고자 경우에 따라 혜택을 계산하여 다른 카드를 꺼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필요의 소비 영역에 있는 브랜드들은 소비자가 더 이상 '갈아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랑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랑의 소비가 되고 싶다면, 소비자가 애정하는 브랜드의 특성이 무엇인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

['아깝다' 연관 '○○료/비' Top20]

아깝다			
1	배송비	6580	28.0%
2	배달비	4658	19.8%
3	택시비	2512	10.7%
4	입장료	2364	10.0%
5	주차비	1048	4.5%
6	수수료	1046	4.4%
7	교통비	980	4.2%
8	택배비	763	3.2%
9	버스비	479	2.0%
10	배송료	449	1.9%
11	대리비	447	1.9%
12	배달료	401	1.7%
13	병원비	382	1.6%
14	학원비	377	1.6%
15	보험료	328	1.4%
16	반품비	274	1.2%
17	응시로	151	0.6%
18	숙박비	114	0.5%
19	연회비	88	0.4%
20	생활비	88	0.4%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2020.01.01.~2023.03.31.

소비를 무조건 아끼는 것이 정답이 아닌 시대가 왔다. 아깝다고 느끼는 소비는 줄이고 만족감을 높여주는 소비는 늘리거나 유지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 1박에 50만 원을 쓰면서 동시에 2만 원을 아끼기 위해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나의 소비는 어떤 소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금융에 확산되고 있는 공포의 전염병, **뱅크데미크(Bankdemic)**

뱅크데미크의 정의, 특징 그리고 원인



성경희 ('주호선생', 리얼스타트업애널리스트)

현대 사회에서 은행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이 없다면 불편하게 돈을 직접 금고에 보관해야 할 것이며, 일상에서의 결제도 모두 현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매달 주기적으로 나가는 휴대폰 요금, 관리비, 공과금 등을 각각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 은행의 주 기능으로는 먼저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이 있으며, 대출 업무, 환전, 돈의 보관 등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은행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찾아볼 수 있다.



현실에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기능 중에 돈의 보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은행도 결국국은 '남'이지만 자신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은행에 대

한 사회적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받는 이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거나 구조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되면 개인은 더 이상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인 '**뱅크런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최근 세계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인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다. 2023년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것이다. SVB는 실리콘 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대출해주는 유일한 상장 은행으로, 22년에 상장된 스타트업의 거의 절반이 SVB에 대출받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컸다. 파산 과정은 먼저 3월 8일 SVB가 자산매각 손실 발생 고지와 함께 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한다.

이러한 발표 이후 은행 창구를 통해 고객사들의 예금 인출이 급증하였고,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SVB의 주가는 급락했고, 미국 재무장관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SVB를 폐쇄하고 FDIC로 예금 지급업무를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즉, 뱅크런으로 인해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상업은행 파산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Silicon Valley Bank

실리콘밸리은행(SVB) 개요

설립	1983년
구분	상업은행
핵심고객	스타트업 및 IT기업
총자산	2090억달러
여신규모	743억달러
수신규모	1731억달러

자료: SVB파이낸셜그룹,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SVB는 고객이 쓸물처럼 인출해 가려는 예금을 주기 위해 자신을 매각해야 했고, SVB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량이 안전자산인 미국채였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채의 가치가 할인되어 할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SVB의 보유 자산으로 뱅크런을 커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뱅크데미크(Bankdemic)이란?

SVB 파산 이후, 2일 만에 뉴욕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마저 위기설이 나둔 후 주가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가시지 않았고, 결국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 인수 합의가 이뤄졌다. 다음으로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뱅크마저 주가가 장중 14% 이상 폭락하고, 신용디폴트 스와프(CDS)가 8.3% 넘게 치솟는 변동성을 보였다.



이처럼 도이체뱅크

마저 흔들리자 세계 금융시장은 빨간불을 켜다. 앞선 SVB와 CS의 파산 사태는 구조적 문제로 일어난 것이라면, 도이체뱅크 주가 폭락은 금융적으로 아무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선 금융권의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의미의 신조어인 '**뱅크데미크**'이라는 단어를 거론했다. 이것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전염병을 뜻하는 'pandemic'의 합성어이다.

뱅크데미크 현상의 주요 원인

앞서 말했던 도이체뱅크 사태는 여태까지의 금융권 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단순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자 대형은행들의 파산이 일어나면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되살아나듯 공포감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예민해진 예금주들은 사소한 악재에도 동요되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은행 예금이 1주일 만에 984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한다. 이것은 1970년대 초 이후 50년 만에 최대의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정보통신의 과도한 발달로 인한 것이다. 누구나 모바일 뱅킹으로 자신의 예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사실이든 거짓이든 정보의 전파가 너무 빨라졌다. 이러한 통신의 발달로 구조적으로 멸종했던 은행도 즐지에 파산 위기에 몰리는 디지털 뱅크런 현상도 뱅크데미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뱅크데미크 현상이 금융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한 공포감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부실대출 문제 등으로 금융권에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이후 과도한 대출과 금리 인상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은행의 부실대출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뱅크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뱅크데미크 현상은 단순한 금융회사나 은행의 구조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뱅크데미크가 한국에서 퍼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적절한 감시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 개인들에게 은행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